

광주·전남 지역화폐 발행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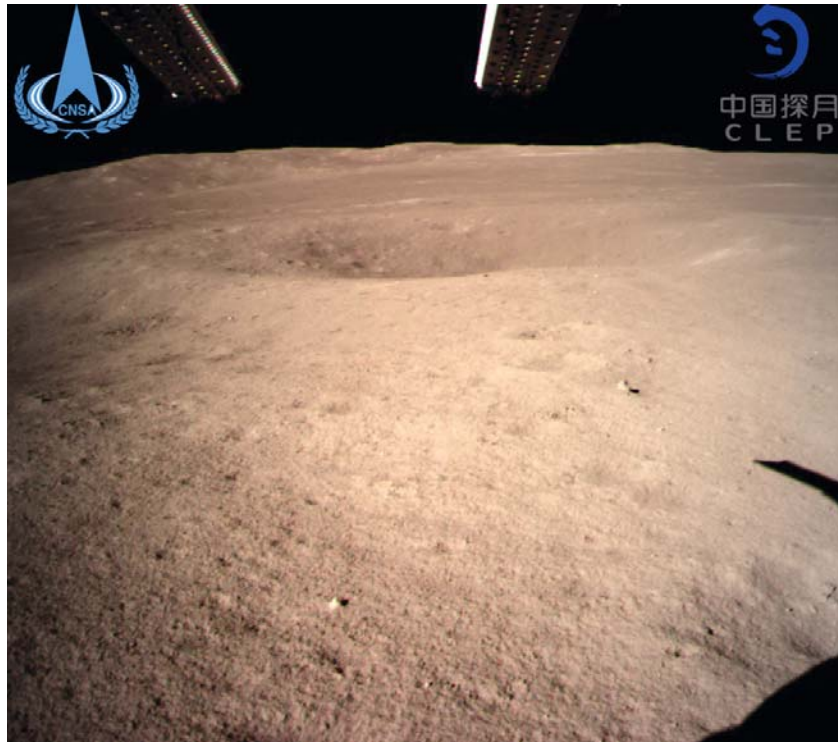
광주시, 체크카드·선불카드 형태 ‘광주사랑 상품권’
전남도, 제로페이 시행… ‘전남 새천년 상품권’ 추진
골목상권 살리기 기대 … 가맹점·이용자 확보 관건

전국 지자체마다 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발행이 붐몰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도 올해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중이어서 ‘골목상권 살리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등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없애기 위한 ‘제로페이’(Zero Pay)가 서울과 부산에 이어 올해부터 전남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 또한 조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이다. <관련기사 3면>
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내에서 자금이 순환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중이다. 광주시는 기명식 체크카드와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의 가칭 ‘광주사랑 상품권’을, 전남도는 ‘전남 새천년 상품권’ 발행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다.
광주시는 이달 중 광주사랑 카드상품권 명칭을 공모하고, 다음달께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 3월 중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도는 ‘전남 새천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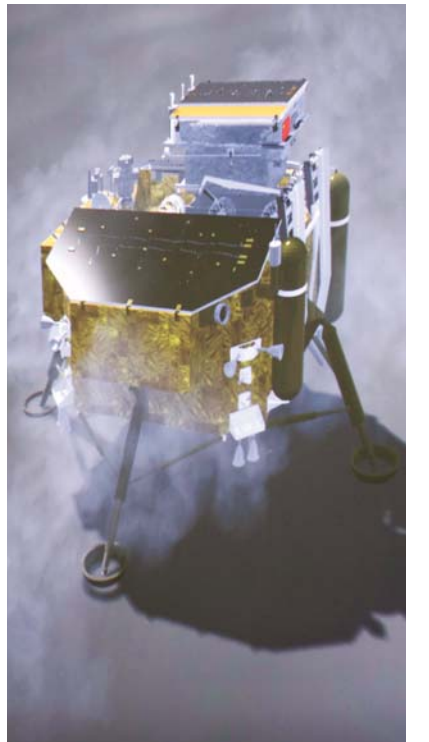
상품권 발행’ 용역을 추진 중이다. 발행 규모, 종이·모바일 상품권 병행, 사군 상품권과 중복 해소 방안 등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 상품권을 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많은 상품권을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 액면 가액의 5%를 할인 발행하고, 할인된 금액은 전남도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젊은 층과 외지 관광객 유치에 위해 모바일 상품권 도입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화폐는 대형 백화점과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만 유통된다는 점에서 광주·전남지역 골목 상권을 되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에서만 유통되기 때문에 생산·유통 소비가 지역에서 순환되는 경제기반이 구축되고, 지역공동체 구성 간 연대감과 공동체 가치가 강조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할인액과 각종 유통비용을 감안하

면 총 발행액의 5~10%를 지자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과연 그만큼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앞서 1일부터는 전남 전역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약사항인 제로페이가 시행됐다.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없는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제로페이는 소비자의 스마트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구매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대금이 즉시 이체되는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현행 수수료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0.8%, 5억원 이하 중소사업자 1.3%, 10억원 이하 2.1%다. 그러나 제로페이 수수료는 연 매출 8억원 이하 0%, 12억원 이하 0.3%, 12억원 초과 0.5% 이내다.
전남도는 제로페이 서포터즈와 도민명예기자단을 활용해 도내 소상공인 13만 사업체 중 50%를 올해 안에 확보하고, 2020년 8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신용카드 수수료 비용은 줄이고 매출을 높이는 전략의 하나로 제로페이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 연구용역 중인 전남 새천년 상품권 발행도 최대한 앞당겨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인류 최초 ‘달 뒷면’에 착륙하다



인류 최초로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 착륙한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嫦娥) 4호’가 3일 보내온 달의 뒷면 사진으로 중국 우주항공국(CNSA)이 제공한 것이다. 창어 4호는 이날 오전 10시 26분 달 뒷면의 동경 177.6도, 남위 45.5도 부근의 예정된 지점인 남극 근처에 착륙했다. >관련기사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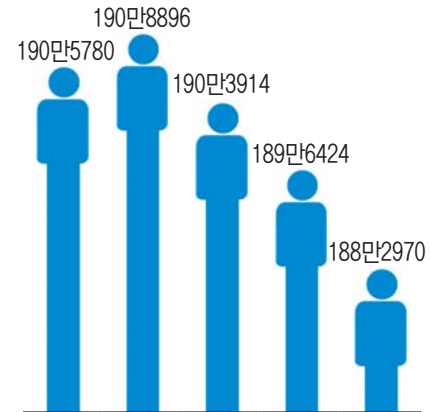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4호’ 안에 들어 있는 무인 로봇 탐사차(로버)가 밖으로 나와 달 뒤쪽 표면을 조사하는 모습의 개념도. /연합뉴스

전남 인구, 지난해 1만3454명 줄었다

2010년 이후 최대폭 감소
인구정책 ‘백악이 무효’

■전남도 주민등록 인구 추이
(단위:명)



지난해 전남도 인구가 1만3000여명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며, 주민등록 인구 수가 1년만에 188만 명대로 추락했다.
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도 주민등록 인구는 총 188만2970명으로 전년도 189만6424명보다 1만3454명(0.71%)이나 줄었다.
전남도 인구는 2010년 191만8485명, 2011년 191만4339명, 2012년 190만9618명, 2013년 190만7172명, 2014년 190만5780명, 2015년 190만8896명, 2016년 190만3914명 등으로 인구 감소 규모가 매년 2000~5000명 선이었다. 그러나 2017년 7490명, 지난해 1만3454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민선 6기와 민선 7기에 걸쳐 인구 200

만 회복이라는 도정 목표를 했지만, 출산 장려와 인구 유입 등 전남도의 인구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40대 미만의 젊은층 감소와 65세 이상 고령층 증가가 굳어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40세 미만 인구 수의 경우 2015년 79

만9470명, 2016년 78만2545명, 2017년 76만2521명, 지난해 74만490명을 기록, 3년만에 5만8980명이 줄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2015년 39만1837명, 2016년 39만8916명, 2017년 40만8451명, 지난해 41만3132명으로, 같은 기간 2만1295명이 증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40대 이상은 전임인구가 많은데 반해, 40대 이하의 자녀교육과 일자리 때문에 빠져 나가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청년 복지 대책 등을 통해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전공대 설립 지원, 특별법 아닌 법률개정·시행령 마련키로

정치 논리 개입 막기

한전 공대의 성공적인 설립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부 차원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개최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 지원 실무위원회에서 법률적 지원 방향을 논의한 결과, 특별법 제정보다는 기존 법률 개정과 시행령 마련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러한 방향은 정부 각 부처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달 말 열리는 한전공대 설립 지원위원회

의에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법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자유한국당 등에서 한전이 특정 지역에 대학을 설립하고 정부가 사립대학의 지원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만지를 걸 수 있다. 정치 논리가 작용하면서 특별법 제정이 표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시행령을 마련하거나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서는 것이 한전 공대의 2022년 봄 개교라는 목표 달성에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우회로를 찾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다.
군발위 관계자는 “특별법 마련이 한전

공대 설립 지원에 있어 깔끔하고 명쾌할 수 있지만 정치적 현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차라리 시행령이나 관련 법 개정 등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공대의 성공적인 설립을 담보할 당사자간 협약이 4일 범정부 지원위원회 주관으로 체결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범정부 지원위원장을 맡은 송재호 균형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장과 광주시의회 의장, 전남지사, 전남도의회 의장, 한전 사장 등이 각각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W

한울 달빛유자 수면팩

한울
달빛유자 수면팩

잘 가, 피부 피로
잘 자, 내 피부

고흥 유자 6개를 고스란히 담아 유자 비타C 콤플렉스™의 향산화력으로
피부피로를 싸악 풀어 다음 날, 생기 가득 환한 피부

한울 韓律

· 전국 이리파도, 마트, 아모레퍼미닉 매장, 아모레퍼미닉 온라인몰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http://www.morepacifical.com · 전화번호: 080-023-5454